



전남 양정두(전남수영연맹)가 지난 12일 오후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점영 50m 경기에서 금빛 역명을 하고 있다.

/대구=김기석 기자 p21@kdaily.com

광주, 수영 김지현 2관왕·노현진 女마라톤 金 전남, 사이클 나아름 4연패·임사랑 2관왕 기염

제93회 전국체육대회
Daegu 2012
The 93rd National Sports Festival

광주는 호자종목
인 양궁에서 광주여
대 안세진이 첫 금메달을 신고하
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안세진은
대회 첫날인 지난 12일 대구 울하
체육공원에서 열린 양궁 여자대
학부 70m에서 330점을 쏘 금메달
을 차지했다.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광주시청
육상도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13
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일
반부 100m(13초70) 허들에서 박
태경을 시작으로 100m(10초57)에
서 임희남, 세단뛰기(7m67)에서
김덕현 트리가 기본 좋게 금메
달을 뒤흔들며 행복한 하루를 보
냈다. '기록의 사나이' 임희남은 14
일 펼쳐진 남자일반부 200m서 21
초18의 개인신기록으로 우승하며
전날 100m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인어공주 김지현(광주체고 3)
은 여자고등부 배영 100m에서 1분
02초85로 우승하며 배영 50m와 합
계 2관왕 2연패를 일궈내는 기염을
토했다. 또 여자 일반부 마라톤에
서 노현진(광주시청) 선수가 2시
간37분39초로 대회신기록을 세우
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부자 출전으로 화제를 모은 남
일부 우수 태극권전에서 장용
호(광주시체육회)가 귀중한 금메
달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남고부
불링팅 박준민·김한웅·정동익(침
단고), 남자고등부 육상 400m허
들의 김현우(광주체고), 남고부
태권도 -74kg 노광훈(문성고), 남
일부 근대5종 윤일모(광주시청)
등도 금메달을 반가운 소식을 전
했다.

전남 전남은 양정두(전
남수영연맹)가 같은
날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일
반부 점영 50m 경기에서 금빛 역



노현진 1위 끝인 14일 오전
대구시 일
원에서 펼쳐진 여자마라톤에서 노현진(광
주시청)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영을 펼친 끝에 전남에 첫금을 안
겼다. 13일 남일부 수영 배영50m
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던
박선관(한체대)도 배영 100m에
서는 55초4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해 대회 3연패를 이뤘다.

전남의 효자 종목인 사이클에서
도 나아름은 14일 열린 여자일반
부 사이클 24km포인트레이스서 22
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
아름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고,
후배 임사랑(전남미용고 2)도 여
고부 사이클 경륜과 스프린트에
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다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남고부 해
머던지기의 김석일(전남체고)이
64m31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
을, 남대부 5,000m의 백승호(전국
대)가 14분22초25, 남고부 100m의
김우삼(전남체고)이 10초67, 남고
부 400m의 이원(전남체고)이 48
초17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이어 남고부 수영 다이빙 스포
링보드 3m에 출전한 류민재(광주
체고 1)가 귀중한 금메달을 획득
했다. /대구=김기석 기자 p21@kdaily.com

“마음 비우니 기대 이상 성적”

전남 첫금 수영 양정두 한국신기록 수립



“부담은 뛴었지만..., 육신
을 버렸더니 기록이 잘 나오
네요”

전남수영연맹 양정두(21)
가 지난 12일 대구 두류수영
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일반부
점영 50m에서 하루에 두 차례
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5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점영 50m 한국 기록은
서울시청 소속이던 정두희가
2009년 7월 체르비아 베오그
라드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
아드 준결승 때 세운 24초 03
이었다. 양정두는 이 기록을 3
년 3개월여 만에 0.26초나 단
축했다. 경기체고 2학년에 재
학 중이던 2008년부터 지난해
까지 매년 전국체전 점영 50m
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정두는
5년 연속 같은 종목에서 금메
달의 주인공이 됐다.

부모님의 권유로 경기도 토
월초등학교 2학년 때 수영을
시작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인 2006년 전국소년체전에서
3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
수(MVP)에 선정되고 고등학
교 3년동안 개인종목 1위를
꾸준히 지켜왔다. 한마디로
수영의 기대주였다.

하지만 양 선수는 국내대회

에서 1, 2위를 다투는 등 최종
상급 실력을 보여왔지만 대표
선발전에만 나서면 유독 성적
이 좋지 않아 아직 한 번도 국
가대표는 물론 상비군조차도
뽑지 못했다.

작년 12월 말에는 소속팀조
차 구하지 못해 오갈 데 없는
천덕꾸러기였지만 때마침 전
남수영연맹에서 구원의 손길
을 내밀어 다시 물살을 가를
수 있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양정두는 “아직 역량이 부족
해 올림픽까지는 거리가 있
다”면서 “현재의 기량을 유지
해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
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잘
준비해 메달에 도전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김기석 기자 p21@kdaily.com



런던 별들 달구벌에서 반짝

기보배·손연재·신아람 가는 곳 마다 팬 몰려

런던올림픽을 빛낸 스타 선수들이 달구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기장엔 구름관중이 물리고, 시민들의 사인·사진촬영 요청 공세가 이어지는 등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체전 양궁 경기가 열리는 대구 옹화공원은 런던올림픽2관왕 기보배(24·광주시청)를 보기 위해 많은 대구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기보배가 경기를 치르는 뒤편으로 학생·시민들이 몰려 “와! 기보배다”를 외치고, 경기가 끝나자 그를 둘러싸고 사인 요청이 시작됐다. 비록 저조한 성적(동메달)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의 요청에 웃는 얼굴로 화답하며 사인을 해주고, 사진 촬영에도 응했다. “우리 아들, 딸이 팬이다”며 몰려든 자원 봉사자들까지 가세해 사인화를 방불케 하는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8·세종고)의 경기가 열리는 곳에도 구름관중이 몰렸다. 지난 13일 오전 대구 경북대학교 제2체육관에서 열린 리듬체조 여자 고등부 손연재의 개인종합 경기를 보기 위해 약 1000여 명의 시민·팬들이 몰렸다. 특히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700여석의 관중석이 가득 차 일부 관중들은 관람석 계단에 앉거나 복도에 서서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다.

관중들은 손연재가 호명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러댔다.

손연재는 우아한 동작으로 고난이도의 연기를 선보이며 대회 3관왕을 달성하며 팬들의 응원에 보답했다.

이밖에 런던올림픽 펜싱 1초 오십사건의 주인공 신아람(계룡시청)의 경기가 열린 대구 정화여고에도 발디딤 틈 없을 정도로 많은 관중이 몰려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대구=고강인 기자 kko@nibbo.com



양궁 대회 첫날 경기를 마친 뒤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기보배선수.

고강인 기자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이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단체전종합 도마에서 ‘여2’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운동 그만 둘 생각까지 했었는데...”

도파동 파동 딛고 2관왕 된 임희남

“운동을 그만 둘 생각까지 했었어요. 많은 동료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일반부 100·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청 임희남(29·사진)은 지난해 큰 아픔을 겪었다. 임희남은 지난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팀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한국기록(38초94)을 새로 썼지만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이며 2년간 출전정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대구대회에서 작성한



한국기록은 자연스레 무효가 됐다. 신기록 작성의 일등공신이 한순간에 역적이 되고 만 것이다. 임희남은 “건강보조제(크레아틴)를 복용한 것일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임희남이 복용한 크레아틴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한 금지약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지독한 불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애초 2년간의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선수로서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올 초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 등 육상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그의 징계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됐다.

그는 와신상담하며 명예회복을 노렸고, 이번 대회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의 기록은 10초57로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장계가 풀린 뒤 사실상 첫 대회에서 오경수(경기), 여호수와(인천), 김국영(경기) 등 경쟁한 상대들을 제치고 파낸 금메달이어서 값졌다. 임희남은 “지난해부터 겪은 힘든 일이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올 시즌 제대로 대회에 출전한 건 전국체전이 처음인데, 생각했던 기록은 아니지만 금메달 획득이라는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대구=고강인 기자

“오갈 데 없을 때 받아준 전남에 감사”

점영 50m ‘한국新 두 번’ 양정두

제93회 전국체전 수영 남자일반부 점영 50m에서 한국기록을 두 번이나 갈아치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사진)는 지난해 말까지 소속팀이 없었다. 대학과 실업팀 등 스카우트 경쟁 속에 문제가 발생해 공중에 뜬 신분이 됐다. 뛰어난 재능에도 갈 곳을 잃은 그에게 손을 내민 건 전남수영연맹 이남현 전무였다. 절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지만 남은 경기를 위해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2년여 동안 경신하지 못한 자신의 최고기록을 넘어선 것에 대해 “생일인 것 같다”며 기뻐했다. 15일 자유형 50m에서도 기록에 도전한 양정두는 국가대표에도 도전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양정두는 “그 동안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꼭 성적이 좋지 못했다”면서 “이를 교훈 삼아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잘 준비해 메달을 노려보겠다”며 각

오를 밝혔다. 글·사진=대구고강인 기자

광주 임희남·김지현 2관왕, 전남 나아름 사이클 4연패

제93회 전국체전...광주대 축구·순천공고 럭비 준결승행



제93회 전국체육대회서 임희남(광주광역시청·사진)·김지현(광주체고)·임사랑(전남미용고)이 2관왕을 나아름(나주시청)이 사이클 4연패를 각각 달성했다.

임희남은 1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일반부(이하 남일반부) 200m서 21초18의 개인신기록으로 우승하며 전남 100m에 이어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김지현은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여자고등부(이하 여고부) 배영 100m에서 1분02초85로 우승하며 배영 50m와 함께 2관왕 2연패를 일

뤼냈다.

나아름은 14일 대구 만촌자전거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이하 여일반부) 사이클 24km포인트레이스서 22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아름은 지난 제90회 대회 첫 우승에 이어 4연패. 임사랑은 여고부 사이클 경륜과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13일 남일반부 수영 배영50m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던 전남의 박선관(한체대)은 이날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배영 100m에서는 55초45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14일 광주는 10개, 전남은 7개의 금을 캐냈다.

광주는 남자고등부(이하 남고부) 육상 400m허들의 김현우(광주체고), 여일반부 마라톤의 노현진(광주시청), 남일반부 불링 3인조 김병석·서상천·조영선(광주시체육회), 남고부 불링 3인조 박준민·김한웅·정동익(천안고), 남고부 태권도 - 74kg 노광훈(문성고), 남일반부 태권도 - 74kg급 한겨레(가스공사), 남일반부 근대5종 윤일모(광주시청), 여일

부 근대5종 4종제주 강수연·김은별·정창순(주)송학건설)이 금메달을 전남은 여일반부 역도 용상53kg 장슬기(보성군청), 여고부 불링 3인조 박휘향·김유미·남옥길(전남선남), 남일반부 그레코로만형66kg 정지현(삼성생명)이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광주대학교 축구는 체전 첫 참가에서 동메달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주대는 14일 서울 광운대와 전남대학교(이하 남대부) 축구 8강전서 0-0으로 비긴후 페널티킥 승부 끝에 5-4로 승리했다.

전남의 반가운 승전보도 이어졌다. 순천공업고등학교는 남고부 럭비 8강전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서울 사대부고에 18-5로 완승을 거둬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대회 3일째인 13일에는 광주·전남 모두 육상의 선전이 돋보였다. 광주는 6개의 금메달 중 4개를 전남은 10개의 금메달 중 4개가 육상에서 쏟아졌다.

광주는 남대부 멀리뛰기에서 정주영(조선대)이 7m40으로 우승한 데 이어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광주

시청 단거리의 박태경, 임희남, 김지현이 차례로 110m허들(13초70), 100m(10초57), 멀리뛰기(7m67)를 각각 제패했다.

전남은 남고부 해머던지기의 김석일(전남체고)이 64m31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후 남대부 5,000m의 백승호(건국대)가 14분22초25, 남고부 100m의 김우삼(전남체고)이 10초67, 남고부 400m의 이원(전남체고)이 48초17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광주는 여고부 수영 배영50m에서 김지현(광주체고), 남일반부 우수 태극권전에서 장용호(광주시체육회)가 전남은 여고부 사이클 경륜에서 임사랑(전남미용고), 남고부 사이클 24km포인트레이스에서 김지현(금성고), 여고부 양궁 50m에서 최미선(전남체고), 여일반부 불링2인조에서 김가람·김현미(곡성군청), 고등부 씨름 용장급에서 고강석(여수공고), 남대부 태권도 - 63kg급에서 서병덕(경희대)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구신문 기자
sgf@namdnews.com

“이젠 아시안게임 준비”

수영 양정두 한국신기록 세우며 전남에 첫 금

“육식 버리고 물살을 갈랐더니 좋은 기록이 나왔네요. 이젠 아시안게임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전남대표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가 지난 12일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접영 50m에서 한국기록을 두 차례나 갈아치우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양정두는 예선에선 23초91을 기록하며 서울시청 소속이던 정두희가 2009년 7월 세르비아 배오그라드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준결승 때 세운 종전 기록 24초03을 3년3개월여 만에 0.12로 단축했다.

이어 열린 결선에선 23초77로 결승점을 찍으며 본인이 세운 한국신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웠다.

양정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더 없이 기쁘지만 아직 남은 경기가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토월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그는 중학교 3학년 때 2006년 전국소년체전에서 3관왕을 거머쥔 기대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양정두는 국가대표는 물론 상비군조차 뽑히지 못한 불운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내로라하는 국내대회에선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유독 대표 선발전에선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아 항상 쓴 잔을 마셨다.

양정두는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단련을 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며 “자녀 12월 말에는 소속팀조차 배정받지 못해 수영



을 그만둬야 될 위기까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양정두는 다가올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에 발탁돼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라고 한다. 양정두는 “아직 올림픽까지는 먼 이야기”라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14년 아시안게임부터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박건우기자

광주시청 임희남 부부 동반메달

육상 남자 100m 금, 부인 김하나(안동시청) 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내년 시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희남(광주광역시청·사진)이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의 아내 김하나(안동시청)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임희남은 지난 1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57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대회 3연패에 도전한 여호수아(경천대학·인천)를 0.11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희남은 국군체육부대 시절이던 2007년에 출전한 제88회 대회 이후 5년 만에 다시 100m 정상에 올랐다.

임희남은 “기록에 만족한다”며 “앞으로 있을 겨울훈련까지 마치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이 나올 듯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팀에 보탬이 되도록 남은 경기에서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남자 400m 계주대표로 참가한 임희남은 대회 기간 시행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핵산 아민이 검출된 사실이 제92회 전국체전 기간에 밝혀져 100m를 제외한 경기 출전을 포기했다.

임희남은 애초 2년간의 출전정지 징계가 예상됐으나 올해 초 징계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면서 경기에 출전케 됐다.

임희남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속상해 하셨을 분들께 죄송하다”며 “메달을 땀으로 그 것에 기뻐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나



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2번이나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조심하며 차근차근 내년 시즌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희남의 아내 김하나도 이날 여자 일반부 100m 결승에 출전, ‘부부 동반 금메달’을 노렸으나 12초1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땀다. 1위 정한솔(김포시청)에게 0.01초 뒤진 기록이다.

대구=박건우기자

“갈곳없던 때 품어준 전남에 감사”

전남수영연맹 양정두 점영 50m 한국신

“예선에서 기록을 세워서 기대를 안했는데 결과가 좋네요.”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첫 번째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 양정두는 지난 12일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점영 50m 예선에서 23초91의 한국신기록을 세워 전체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오르더니 결승에서 다시 23초77로 기록을 단축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정두희가 2009년 7월 세트비어 배오그라드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준결승 때 세운 종전 기록(24초03)을 3년3개월여 만에 0.26초나 단축했다. 전국체전 점영 50m에서만 5년 연속 금메달이기도 하다.

양정두는 “지난달 회장배 대회

에서 기록이 잘 나오길래 이번 체전에서 기록을 조금 기대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너무 기쁘다. 하지만 자유형 50m에도 욕심이 있고 계영 400m도 남아있는 데 여기서도 좋은 기록 나올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6년 전국소년체전에서 3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등 기대를 받았던 양정두지만 아직 한 번도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국내대회에서는 1,2위를 다투지만 대표선

발전에서는 유독 성적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작년 12월 말에는 소속팀조차 구하지 못해 오갈 데 없는 상황에 타지기도 했다. 이때 손을 내민게 전남수영연맹이었다.



양정두는 “수영이 너무 좋는데 작년에 대학과 실업팀 사이에서 붕 뜨면서 오갈데가 없어질 처지가 됐다. 그런데 전남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광주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탈락했다”며 “이를 고훈 삼아 인천 아시안게임에 꼭 출전해 메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평소 약했던 장거리 금메달 더 기뻐”

광주여대 안세진 양궁 여대부 70m 금

“컨트롤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워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전남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긴 안세진(광주여대 3년)은 금메달을 따고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주력해서 훈련중인 속사가 제대로 구사되지 않은 탓이다.

안세진은 지난 12월 70m에서 금메달(330점), 60m에서 동메달(339점)을 따낸 이후 50m에서 은메달(338점)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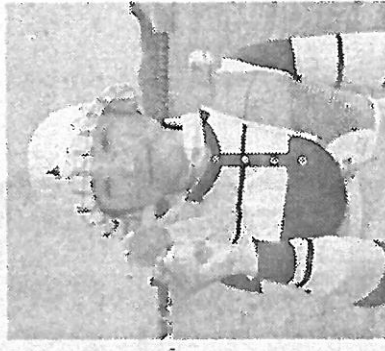
체전 금메달은 광주여대 1년째 3관왕을 포함, 4번째다. 지난해 은메달만 2개를 땀던 안세진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한번 우승을 차지하

며 ‘제2의 기보배’다운 실력을 과시했다.

안세진은 최근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의 지도로 속사를 익히고 있다. 아쉬워한 것은 연습중인 속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점이다. 경기 도중 바람이 불어 컨트롤을 잡지 못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7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 자체만으로는 기뻐했다. 안세진은 “단거리에서는 강했지만 장

거리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 다. 하지만 이번에 장거리에서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체전이 끝나면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안세진은 “1주일후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시작된다. 그동안 준비를 잘해온 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진화 기자



14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53kg급 경기에서 보성군청 장슬기가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광주체고)

(전남미용고)

김지현·임사랑 2관왕

보성군청 장슬기 역도 금·은

박선관 허리부상 투혼 금물살



전남은 역도에서 보성군청 장슬기(20)가 금 바벨을 들어올렸다. 장슬기는 14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53kg급 용상에서 107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기록했다. 인상에서는 77kg으로 5위를 기록했지만 합계에서 184kg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장슬기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전남체고 3학년때인 지난 2009년 58kg급 용상 금메달 이후 3년만이다.

수영 국가대표 박선관(한국체대)은 배영 100m에서 금물살을 갈라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박선관은 대회 하루전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대회 출전이 불투명했다. 전남수영연맹은 국가대표선수의 몸 보호가 우선인 만큼 대표팀에 출연여부를 맡겼다. 하지만 박선관은 대회출전을 강행, 55초45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투혼을 보였다.

레슬링의 정지현(삼성생명)도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난 2009년 대회이후 3년만의 전국체전 금메달. 사이클 국가대표 나이름(나주시청)도 24km 포인트레이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전남마용고 임사랑(2년)은 사이클 여고부 경륜과 스프린트 1위로 대회 2관왕을 기록했다. /최진화 기자

다관왕 시동이 걸렸다. 광주시청 임희남이 대회 2관왕에 오르는데 이어 광주체고 김지현(3년)이 2관왕 물살을 갈랐다.

김지현은 14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여고부 배영 100m에서 1분02초85로 우승,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전남 배영 50m에 이은 두 번째 금메달이다.

육상 남고부 400m허들에서는 김현우(광주체고 3년)가 52초26으로 개인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불링 3인조전에서 광주시체육회가 금메달을 보냈다.

태권도에서도 2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노광훈(문성고 3년)이 남고부 74kg이하급에서, 한겨레(가스공사)가 남자일반부 74kg이하급에서 각각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복구청 감독은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세종고 소프트볼은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각각 동메달을 보냈다. 또 광주체육회 스쿼시는 남녀일반부 모두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광주대 남대부 축구, 동신여고와 동구청 정구, 조선대 농구도 동메달을 확보했다.

新나는 광주·전남

수영·고교 꿈나무 등 기록 갈아치워



광주·전남 수영에서 한국 신기록 등이 나오며 연일 금빛 역영을 선보이고 있다. 고교 꿈나무들도 육상·양궁·역도 등에서 신기록 행진에 동참했다.

양정두 (21·전남수영연맹·사진)는 한국신기록 2개를 세우며 올 체전 전남 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양정두는 지난 12일 끝난 남자일반부 점영 50m에서 23초77의 기록을 세우며 1위로 터치 패드를 터치했다.

이 종목 5연패를 달성하며 전남 선수단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된 양정두는 특히 이날 오전 예선과 오후 결선에서 한국기록을 2번이나 깼다.

양정두는 예선 2조에서 23초91을 기록하며 지난 2009년 7월 정두희가 세운 24초03을 3년3개월여만에 0.26초 단축했다.

결선에서도 양정두는 자신의 예선 기록보다 0.14초 빠른 23초77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2008년 경기체고 2년때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해 이종목에서 한차례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양정두는 올해는 전남 유니폼을 입고 대회 5연패와 한국기록을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양정두는 13일 열린 계영 400m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양정두는 15일에는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지난해 수영 2관왕인 광주체고 김지현 (3년)은 여고부 배영 50m에서 29초16의 대회 신기록으로 3연패를 이뤘다.

김지현은 2010년부터 배영 50m 정상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14일 열린 배영 100m에서도 김지현은 이종목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육상 노현진은 여자 마라톤에서 2시간37초3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국체전 첫 메달이자 우승을 대회신기록으로 장식했다.

고교 꿈나무들도 신기록 행진에 동참했다.

양궁에서는 전남체고 최미선 (1년)이 여고부 50m에서 349점을 쏘며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전국체전 첫 출전에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육상 남고부 해머던지기예 출전한 전남체고 김석일 (3년)은 대회신기록인 64.31m로 1위에 올랐다.

광주체고 조성빈 (3년)은 금메달은 놓쳤지만 여도 남고부 +105kg급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작성했다.

용상 208kg, 합계 376kg으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광주시청 남자 육상팀 박태경, 임희남, 김민균, 김덕현 (왼쪽부터).

광주시청 육상 3인방 박태경·임희남·김덕현

태극마크 자존심 살린 금빛 질주

"뽕뽕 뭉쳐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며 실주했던 팀의 명예도 회복해 기분 정말 좋습니다."

전국체전 3일째인 지난 13일 육상 경기가 한창이던 대구스타디움.

광주시청 남자 육상팀 박태경 (32)·임희남 (28)·김덕현 (27)이 차례로 경기를 마친 뒤 환한 미소로 서로를 힘차게 격려했다.

국가대표 3인방인 이들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상과 부진,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자존심이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하지만 함께 시상대 맨 위에 서며 개인 명예회복과 함께 광주시청 육상의 재도약을 일려했다.

박태경은 만형 담계 가장 먼저 금메달 소식을 알렸다.

박태경은 남자일반부 110m허들에서 13초70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에서 한국 대표팀 주장을 맡은 박태경은 당시 자신의 기록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으로 예선에서 떨어졌다. 마지막 올림파이를 올 런던대회에는 기준 기록을 통과하지 못해 출전조차 못했다.

박태경은 이날 우승으로 전국체전 25개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경의 금빛 질주 바통은 임희남이 이어 받았다. 임희남은 100m에서 10초57의 기록으로 국가대표 여호수아 (인천·10초88)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돌아왔다. 7번 레인에서 출발한 임희남은 레이스 중반부터 무서운 스피드로 선두로 치고 나왔다.

임희남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400m 남자계주에서 대표팀 마지막 주자인 앵커로 나서 38초 94

한국신기록을 견인했다.

하지만 도핑테스트에서 자신도 몰랐던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가대표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고 당시 세운 한국신기록과 메달도 박탈당했다.

그 충격으로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제대로 뛰지 못한 임희남은 명예회복을 위해 이를 악물었고 부상 등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일궈냈다.

임희남은 14일 열린 200m에서도 21초18의 개인 신기록으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김덕현은 멀리뛰기에서 7m67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한국 도약종목의 희망"인 김덕현은 최근 부상으로 국내의 대회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덕현은 지난해 대구세계육상대회에서 멀리뛰기 8m2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결선에 올랐다.

하지만 자신의 주종목인 세단뛰기 예선에서 부상을 입고 멀리뛰기 결선마저 뛰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올 런던올림픽에도 멀리뛰기에 출전했지만 부상 악몽에 예선 탈락했다.

이들의 명예회복 기회는 아직 남았다.

15일 400m 계주에 박태경과 임희남이 환상 호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김덕현은 세단뛰기에서 2관왕에 도전한다.

박태경과 임희남은 "팀 경기니까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며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김덕현도 "그동안 부진해 팀에 미안했다. 시합 도중 대경이 형과 희남이 형이 뛰는 것을 전광판을 통해 봤다. 두 형이 잘해서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광주 단체 이번 전남 챔피언 이름값



런던올림픽에서 남자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양화선(광주)이 14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단체전 종합에서 링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대 축구 첫 출전 銅 확보... 세종고 女소프트볼, 실업팀 꺾어
전남 사이클 나이를 4연패... 수영 박선관·사격 정윤균 2연패



광주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단체종목 팀이 잇따라 이번을 연출하며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전남은 최강자들이 챔피언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름값을 해냈다.

광주대 축구는 2008년 창단 후 4년만에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감격의 동메달을 확보했다.

광주대 축구는 14일 대구 강변축구장에서 열린 남대부 서울 광운대와 2회전에서 전·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겼다.

광주대는 올 5월 전국체전 대표 선발전에서 남부대를 꺾고 2008년 창단 후 4년만에 체전 첫 무대를 밟았다. 1회전에서 대학 강호인 강원대표 관동대를 1-0으로 꺾고 이번을 연출했던 광주대는 광운대마저 제압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광주대는 15일 오전 11시40분 경기대표 경희대와 준결승전을 치른다.

세종고 여자 소프트볼은 실업팀들을 꺾으며 값진 3위를 차지했다.

세종고 소프트볼은 이날 대구체육회와 여자일반부 준결승전에서 2-6으로 졌다. 세종고는 지난 13일 2회전에서 실업팀 강호 인천시체육회에 7-6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여자 소프트볼은 올해까지 여자 고·대·일반부가 한종별로 치러진다.

광주시체육회 남녀 스쿼시도 각각 전북선발과 부산시체육회를 2-0, 2-1로 꺾고 은메달을 확보하며 결승에 올랐다.

근대5종에서는 금메달 2개가 나왔다.

광주시청 윤일모는 근대4종개인에서 475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시범경기로 치러진 여자일반부 근대4종 계주에서는 광주선발인 강수연·김은별·정창순이 2988점을 합작하며 우승했다.

전남은 개인·기록종목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올 런던올림픽 여자 사이클에 출전했던 나주시청의 나아름은 여자일반부 24㎞포인트레이스(22점)에서 우승했다. 2009년 전국체전에 첫 출전해 금메달을 딴 나아름은 4연패를 달성했다.

수영 박선관(한국체대 4년)과 사격 정윤균(국군체육부대)도 최강 실력을 뽐냈다.

박선관은 남자일반부 배영 100m(55초45)에서 3연패, 정윤균은 더블트랩(178점)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이뤘다.

전남미용고의 임사랑(2년)은 여고부 사이클 경륜과 스프린트에서 다관왕이 됐다.

전남은 여자 불링과 남자 레슬링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박희항(고흥산업고)·이영승·남옥길(이상 전남조리과학고)이 호출을 맞춘 여고부 불링은 금빛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레슬링 국가대표 정지현(삼성생명)은 그레코로만형 66㎏급에서 우승했다.

여자 역도 장슬기(보성군청)는 53㎏급에서 2개의 메달을 딴다.

인상은 77㎏으로 5위에 머물렀지만 용상에서 107㎏을 들어올려 1위, 합계 184㎏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대구-청소연 기자 sy passion@